

# 증권사 토큰증권 협의체 구축 쏟아진다... 경쟁 혜택 기대

금융당국 올 상반기 개정안 제출  
한국투자 ST 프렌즈 첫 번째 사례  
유진투자증권·SK증권·KMAX도  
해양자산 STO 발행 사업 공동 추진  
수익성 높진 않지만 혁신성 분명



한국투자증권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결성했다. /한국투자증권

증권사들이 토큰증권(STO)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잇따라 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TO의 제도권 편입을 앞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말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퉀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2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했다. 이 협의체는 한국투자

증권을 주축으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사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한다. 또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한다. 이번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첫 번째 사례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같은 기간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은 한국해양자산거래(KMAX)와 해양자산 관련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해운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확보할 때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마트컨테이너, 항

만 운영권 등 다양한 해양자산에 대한 STO 발행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KMAX는 친환경 해양자산 소싱과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을 맡고, SK증권은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신탁수익증권 발행 업무를 전담한다.

KB증권도 지난 8일 스타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 등 STO 관련 사업자들과 'ST 오너스'를 구성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0일 '기업 간 협의체인 'STO 비전그룹'을 출범했다. STO 비전그룹은 NH투자증권과 조각투자사업자 투게더아트(미술품), 트레저러(명품), 그리너리(탄소배출권),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오디세이, 파라메타, 한국기업평가 등 8개사가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6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토큰증권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대신증권은 조각투자업체와 인수합병을 통해 STO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지난 15일 디지털 수익 증권 거래소 '카사'를 인수했다. 카사는 소액으로도 상업용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서 이번 인수로 대신증권은 증권·금융과 부동산 사업 간의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도 부동산과 미술품 등 조각투자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도하에서는 거래량이 일정 이상 올라 오기 전까지는 증권사 입장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1~2년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의 혁신 가능성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 외의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 2차전지株 에코프로 3형제 쏠림... 코스닥 상승 견인

시가총액 387兆로 증가  
최근 거래대금 코스피 추월  
전문가들 "단기 현상일 뿐"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8.96% 오른 데 비해 코스닥지수는 22.72% 상승했다. 이같은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에는 이른바 에코프로 3형제(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에도 5.41% 오르는 등 연초 이후 지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장 중 한때 824.20을 기록해 지난해 8월 19일(827.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315조4987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현재 386조8952억원으로 71조3965억원 늘어났다.

최근 코스닥 거래대금도 코스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35거래일 연속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3일 코스닥 거래대금 규모는 17조9411억원으로 작년과 올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이보다 거래대금이 많았던 날은 지난해 1월 17일(당시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20조 5488억원) 단 하루뿐이었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의 강세현상은 개인 매수세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3조2128억원어치를 사들였으며, 이달에는 2조5087억원어치를 순매

수했다.

증권업계는 코스닥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림 원인으로 코스닥 시장 내 2차전지 소재주들의 급격한 주가 상승을 꼽았다. 국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342.72% 급등했으며 같은 기간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은 152.99% 올랐다. 이달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8129억원을, 에코프로비엠 5392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에코프로 3형제를 필두로 한 2차전지 관련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주가 흐름은 부진하다는 분석이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에서는 최근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일부 사이즈 큰 종목들이 아웃라이어

(예외)성 지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라며 "지수는 강보합이었는데 유독 하락한 종목 수가 상당히 많거나,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도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보다 많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러한 쏠림 현상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의 특징은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2차전지 등 일부 분야로의 수급 쏠림 심화"라며 "통화정책 및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구조적 성장 및 정책 수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종으로의 단기 쏠림은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일정 수익 구간이 지나면 통상 대안을 찾는 것이 경험적인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 분양 캘린더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조감도. /두산건설

### 전국 7개 단지서 총 6658가구 분양

3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658가구(일반분양 419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에 우암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총 30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203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우암·대연 재개발지구는 사업 완료 후 약 1만2000여 가구의 신형주거타운을 형성 예정이다.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휘경3구역을 재개발한 '휘경자이디센시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 70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외대역과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 서울 집값 하락폭 6주째 축소... 매수심리는 3주째 상승

전주 대비 0.15% 하락 0.01%p ↓  
강북구 -0.26%서 -0.20%  
강서구 -0.37%서 -0.34%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과 경기 침체 둔화 등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6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계기로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상승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16%)보다 0.01%포인트(p) 축소되면서 6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26%→-0.20%)가 미아·우이동, 도봉구(-0.29%→-0.24%)는 도봉·쌍문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37%→-0.34%)가 가양·염창·화곡동, 금천구(-0.37%→-0.31%)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동남권의 경우 서초구(-0.01%→0.00%)가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강동구(-0.02%→0.00%)는 상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해 보합 전환했다. 지난주 하락 반전한 송파구(-0.01%→-0.06%)는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

폭이 큰 급매물은 소진되고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완만한 가격 상승세 나타나고 있다"면서 "매수 문의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가 이어지면서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회복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0일 기준)는 69.3로 전주(68.4)보다 0.9p 상승했다.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지만, 최근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3주째 올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417건, 2440건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하락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리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대내외 환경이 인하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집값 하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